

# 농축산용 GMP 시설, 정읍에 들어서

### 100억 투입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착공... 미생물 제품 생산과정 안전성 보증

국내 최초의 GMP(우수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이 정읍시에 들어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가 운영 중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는 1일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착공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권 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이학수 정읍 시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전북대 송철규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시 신정동에 들어서는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540㎡ 규모로 건립된다. 이에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게 되며,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미생물 분야 제품을 생산한다. 또 반

려동물 펫푸드부터 비료와 작물보호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농축산 분야 GMP 시설을 통해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체들의 조부가까지 제품생산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생물 분야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인구 증가 등으로 미생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읍이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센터장(부자생물학과 교수)은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인구 증가 등으로 미생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구축사업을 계기로 정읍은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는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3층 25기의 분석 장비를 보유, 국내 유일의 사료시험 분석기관과 비료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기자·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신정동 일원서 1일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 “열심히 일하는 교원 우대”... 유·초·중등교원 인사제도 개선

### 도교육청, 농어촌 가산점 축소·대규모학교 가산점 확대 등 반영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유·초·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승진 규정 제4조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이성이 교원인사과장이 밝힌 이번 인사제도는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 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 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 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TF를 꾸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인

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육 환경 변화와 여건 개선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한 유·초·중등교원 인사제도로 교원의 인사 만족도 증대와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노동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사용 드론 시장 수출 발전방향 모색

### 전주대, 산학연관 글로벌

### 드론 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 한국화이바 등 5개 기관과 협약



전주대학교는 1일 대전 계룡스피텔에서 '산학연관 글로벌 드론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일 대전 계룡스피텔에서 '산학연관 글로벌 드론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시와 협력해 드론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선도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전국 34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포럼의 회를 구성하는 등 드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 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 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 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TF를 꾸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인

전센터장을 역임한 서정원 KAIST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소외와 함께, 우리 군이 직면한 드론 전력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건설적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전주대, 한국화이바,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SIA, 덕산랩코어스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배 총장은 “드론 산업 분야 선도대학으로 이번 포럼 및 컨소시엄이 군사 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대학도 정책과 기술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농진청과 데이터기반

### 미래농업 혁신생태계 조성 '맞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데이터 기반 미래 농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와 발전을 추진하며, 국내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전주대는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미래 농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학과와 Agro AI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을 비롯해 인공지능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인공지능 컨소시엄의 7개 대학중 전주대 인공지능학과가 참여학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권 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이학수 정읍 시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전북대 송철규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시 신정동에 들어서는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이와 함께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 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 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 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TF를 꾸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인

#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기’

### 전주교대, 인디애나주립대 박용준 교수 초청 특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1일 황학당에서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박용준 교수 초청 글로벌 리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기본 소양 함양과 실천적 참여교육 실현을 위해 부설인성교육원에서 추진했다. 특강은 박용준 교수의 인디애나주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글로벌 시민의 의미와 교사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디애나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어떤 장애물도 함께 극복하며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준 교수는 뉴욕 주립대학교 부설유아연구센터 교사, 유아수리교육 교과과정 개발 프로젝트 팀 연구조교, 플로리다 사우던 칼리지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1일 황학당에서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박용준 교수 초청 글로벌 리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석대, 국립특수교육원 이한우 원장 초청 특강

### 국립특수교육원



이한우 원장이 모교인 우석대학교를 찾아 특강을 했다.

이에 따르면 1일 교양관에서 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재활상담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특수교육 정책 및 관련 법령 이해를 주제로 특수교육의 현주소와 특수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한우 원장은 “우리나라는 현

재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이라며 “특수교육교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발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의 발전에 우석대학교 후배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한우 원장은 1994년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선진학교 교사를 거쳐 교육부 교육연구관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건협, 비전염성질환 관리 추진

### 캄보디아에 보건의료사업단 파견... 10~17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와 함께 캄보디아에 보건의료사업단을 파견, 비전염성질환(NCD)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정부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는 민간 협력사업이다. 캄보디아 프놈펜 프렉스프노우 지역의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전북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2024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오는 10~17일 캄보디아 프렉스프노우 지역에 보건의료사업단을 파견해 mHealth를 활용한 비전염성질환(NCD)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파견 기간 동안 프렉스프노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전염성질환자를 선별하고, 고위험군 추적 관리를 위한 기본 건강 검진을 제공한다. 또한 검사 인력의 자기주도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검사기술 전수, 검사장비 활용 모니터링 등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9월 1일자 교육장 공모

### 7일까지 서류 제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3년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 예정 인원은 중등 1명으로 지원 자격은 중등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이다.

다만 징계의결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장은성 기자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봉역량 △전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14일까지 공개검증과 온라인동료평가를 진행, 19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내일 '고려대·연세대 입시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3일 오후 2시부터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대입을 위한 고려대·연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원 선호도가 높은 고려대와 연세대의 입학전형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 2023 대입 입시설명 결과 안내, 2024 대입 입학전형 설명 등으로, 이후 대학별 입학전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는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진행된다. 교사 연수는 2024학년도 대입 관련 대학별 지원전략 수립 및 진학지도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교사 연수는 사전 신청한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